

국제경쟁력과 연구지원: 인문사회과학 분야

주 자 문 |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I.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또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는 지식이 새로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생산, 유통, 이전하는 주체인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동과 자본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에서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지식창출과 활용에 있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 문제가 새롭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진 국가들은 산업과 대학이 동반 발전함에 따라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가 새로운 약진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장수영, 2001, 14). 아울러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내용을 채워 주는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이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Robert Allen은 현대 경제가 하이

테크(high-tech) 상품 생산과 같은 기술진보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술(Techism)만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새로운 지식기반경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 교육과 같은 영역에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Allen, 1999, 1).

II. 국제경쟁력과 인문사회과학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큰 주제의 틀 속에서 특히 인문사회과학 연구와 국제경쟁력의 관계를 논의하려면 인문사회과학이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문사회과학이 시장지향적 경쟁력에 좌우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요구에 관계없이 발전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다른 응용학문과는 달리 시장성(marketability)과 경쟁성(competitiveness)을 두고 가치를 바로 창출하도록 강요하는 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문학적 가치와 도구는 시장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물론 특정 분야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장성

“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많은 학자들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학제간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

이 많은 부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지적 토양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과학이 시장에서 소외된다고 해도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은 경제성이 없다고 치부할 수만도 없다.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어떤 영역들은 이미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해도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이론들은 개인, 사회,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인간문제에 대한 사유와 비전을 인류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정책과 행위에 연결시키는 가교(bridge)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는 이러한 지식영역밖에 없다 (Mayor, 1988, 458). 비록 그것이 즉각적인 생산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해도 장기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기적 큰 변화들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논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은 개인, 사회, 국가에게 인문학적 가치나 공동체적 가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물질적인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폐해와 그 비용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인간과 사회가 변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분석하고 예

측함으로써 인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경제적 수치로 나타나지 않지만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들은 대학 연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임무중심적이고 (mission-oriented) 선별적인(selective) 정책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에서는 비례적 분배방식(proportional allocation policies)이 여전히 강하다. 최근 계약을 통한 접근방법(contractual-oriented approach)이 유럽국가들에게서는 증가되고 있다. Aldo Geuna의 연구에 의하면 시장(quasi-market)에 기초한 분배 메카니즘과 좀 더 분배적인 접근방법(more distributive approach)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임무중심적이거나 계약에 의한 분배는 연구가 단기적 성과만을 중시하게 될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Geuna, 1999, 19~20).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많은 학자들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양적인 면에서는 팽창을 거듭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이를 뒤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동안 국내 학자들의 배출, 활발한 해외 유학 등을 통해 학자 양성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경우 이론적 토대가 외국 모델을 수용하고 있

는 편이어서 독자적인 이론 개발에 약한 상황이라는 데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아울러 학제간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은 인문사회과학이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방법, 그리고 저변 확대를 억제하였음은 물론, 토론 비판과 반비판의 공간을 폐쇄시켰다”고 보는 역사적 정치현실의 지적(배규한, 1998, 13)에서부터 경제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자연과학에만 치중했다는 지적,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기초과학이 그동안 내재되어 온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이 국제경제력을 가지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좋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198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Herbert Simon은 미국 상원 소위에서 “기본 데이터의 부적절(inadequacy)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과학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작동하고 인간 행위자가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들을 많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Mayor, 1998, 457).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와 비교(comparative)연구들도 많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험을 이론화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본다. Hong Yung Lee 교수는 한국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문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자체가 ‘실험실(laboratory)’로서 인류사회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설들이 검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Lee, 2002, 15~16). 즉, 한국은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등 인문사회학 전반에 걸쳐 다른 국가들이 가질 수 없는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설 정립, 가설 검증 등 이론화 작업이 학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대한 심층적인 인문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이론화 작업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Ⅲ. 국제경쟁력과 대학에서의 연구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 경쟁력연보』에 의하면 1998년 36위, 2000년 28위, 2002년 27위를 차지하였다(〈표 1〉).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상승은 IMF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의 이미지가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표 산출에 있어서 인프라(infrastructure)가 4개의 큰 평가기준 중 하나이며, 인프라의 내용 중에서 전체 R&D 지출, 기초연구 등 20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학술 인프라(scientific infrastructure) 항목이 있다. 결국 학술인프라를 늘려 나가는 것도 국가 경쟁력 지표를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기여율은 1999년 45.6%로서 첨단제조업이 미치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 30.3%보다 높게 나타났다(장수영, 2001, 11). 정부의 R&D 투자는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능력

〈표 1〉 IMD의 국가 경쟁력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경쟁력 순위

년도	'98	'99	'00	'01	'02
순위	36	41	28	28	27

〈표 2〉 주요 선진국의 정부 R&D 예산

(단위: %)

국가	한국('00)	미국('99)	일본('98)	독일('98)	프랑스('98)	영국('98)
정부 R&D 비율	1.0	20.2	10.9	4.0	2.6	2.1

〈표 3〉 정부 R&D 중 대학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국가	미국('00)	일본('99)	독일('00)	프랑스('00)	영국('99)	한국('01)
비중	35.1	37.8	43.9	41.1	46.7	23.9

*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결과, 2002, 50~51.

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R&D 지출은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 예산 중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아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적고 있고 일본, 미국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

R&D 투자 중 대학에 대한 투자를 보면 OECD 국가들에서의 전체 R&D 중 대학 연구(University research)가 차지하는 비율은 15~35%이다(OECD, 1999, 9). 대학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전체 R&D의 15%인 반면, 다른 OECD 국가에서는 25~30%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학연구의 60%가 기초 연구에 할애되고 있다(OECD, 1999, 21). 선진국들의 경우 대학 R&D의 대략 60% 정도가 직접 정부기금에서, 30% 정도가 대학일반기금에서 충당된다(Geuna, 1999, 6). 대학의 연구에는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가를 보면 한국의 정부 R&D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23.9%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3〉). 이것은 유럽 선진국가들에 비하면 너무 적은 지원이며 대학에 대한 국가의 연구지원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식의 경우 R&D 투입량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문제도 양적 문제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9년의 경우 전세계 4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식기반경쟁력 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지식기반경쟁력은 세계 24위 수준이며 지식투입경쟁력은 7위, 지식활용기반경쟁력은 24위이나 미래경쟁력의 지표인 지식창출기반경쟁력은 42위로 지식의 창출과 활용은 상당히 뒤져 있는 편이다. 이것은 한국의 과학기술투자 및 정책방향이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장수영, 2001, 13).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영미 국가에서는 대학은 기초연구를 하면서도 국방, 에너지, 농업 등 국가부문에 치중하는 공공 연구기관들과 공존한다. 대륙의 큰 유럽 국가들은 대학연구가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또한 응용과학에 참여하는 규모가 큰 공공 연구기관(프랑스의 CNRS, 이탈리아의 CNR, 독일의 Max Plank 연구소)과 공존한다. 대륙의 작은 유럽 국가들은 공공 연구기관들에서 기술, 산업연구활동을 하는 반면 대학에서는 대부분 기초연구를 한다.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랜드는 공공부분이 큰 반면, 스웨덴, 스위스는 작다(OECD, 1999, 21~22). 한국의 경우 대학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연구기관들은 주로

〈표 4〉 국가 총 R&D 중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비율

(단위: 억 원)

분야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금액	689	44,594
비율	1.5%	98.5%

응용연구에 치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사실 교육과 연구 사이의 균형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선진국들의 경우 3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 연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 구 사회주의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을 들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연구에 치중하고 대학은 교육에 몰두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도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라 대학에 기반을 둔 연구가 강화되고 있다. 둘째, 대학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이나 영국, 호주의 대학제도의 경우 몇몇 대학은 연구중심으로 가고 다른 대학들은 교육중심으로 가는 경우이다. 셋째, 제도차원에서 교수진에게 교육과 연구의 역할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처럼 주당 시간의 44%를 교육에, 32%를 연구에 할당하고 있는 경우이다(OECD, 1999, 19~20). 한국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치중하고 연구를 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강의전담교수 또는 연구교수 등 교육과 연구를 분리하려는 시도도 보여지고 있다.

Ⅳ.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현황

한국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우선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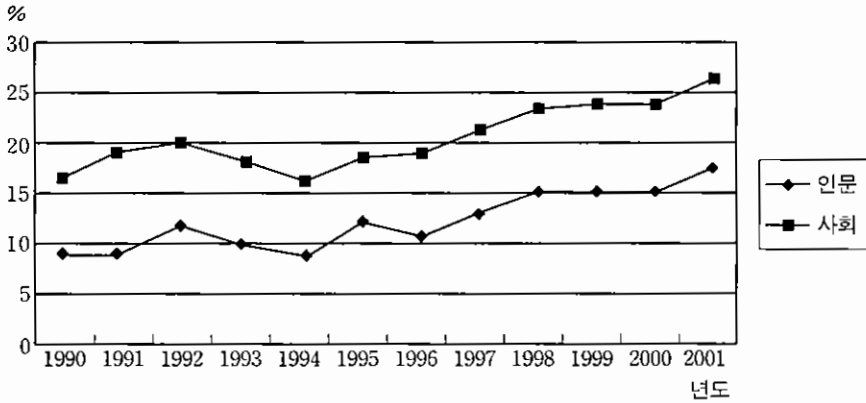
R&D 지출을 살펴보면 아직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미한 편이다. 각 정부 부처나 기업 등의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해서 보면 인문사회 계열에 지원되는 비율은 4~5%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배규한, 1998, 14). 200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 총 R&D 사업분야별, 단계별 지원 현황을 보면 인문사회에 1.5%, 자연과학에 98.5%가 지원되고 있다(〈표 4〉).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지원은 거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비 지원이 전체 연구비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난 10년간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인문과학의 경우 1990년 9.0%에서 1996년 11.0%, 2001년 17.1%로 증가하였고, 사회과학의 경우 1990년 16.4%에서 1996년 19.0%, 2001년 26.4%로 증가하였다(〈그림 1〉).

또한 과제당 평균 지원액을 보면 2001년의 경우 어문 15,795천 원, 인문 22,275천 원, 사회 20,091천 원으로 이학 26,950천 원, 공학 21,267천 원과 큰 차이 없이 지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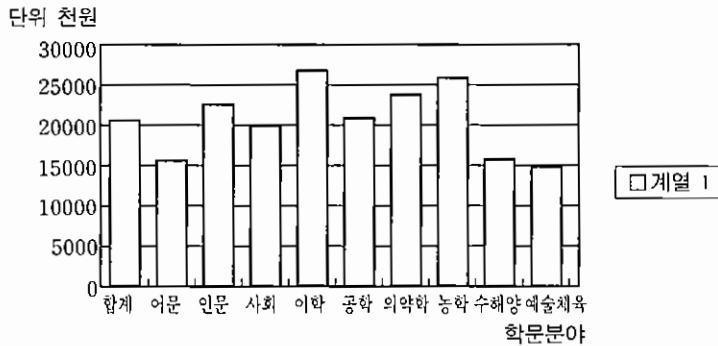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학술진흥재단의 4대 프로그램(선도, 신진, 협동, 기초과학)과 관련하여 인문사회과학의 비율을 보면 연구비 지원 횟수는 인문 분야의 경우 1,215회, 사회 분야 1,203회를 차지하였다(〈표 5〉).

2002년 학술진흥재단에서는 이전부터 해 오던 인문학 지원사업 이외에 기초학문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인문학 등 기초학문의 보호 육성을 위해



〈그림 1〉 학문 분야별 학술연구비 지원 현황

* 출처 :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2, p.43, 〈표 1-3〉을 도표화한 것이며 인문 분야는 어문과 인문을 합한 수치임.



〈그림 2〉 학문 분야별 과제당 평균지원액 (2001년)

* 출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2, p.77, 〈표 1-24〉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2002년도 첫째에 인문사회 940억 원(기존 사업 40억 포함), 기초과학 272억 원(기존 사업 150억 포함)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인문사회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R&D 수준에서 비슷한 프랑스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이 2002년의 경우 연구개발 민간지원

예산(BCRD)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57억 프랑으로 전년도에 비해 4% 증가한 액수다. 1993~1997년 사이 9.5% 증가한 데 반해 1997~2002년에는 23.3% 증가한 것처럼 인문사회과학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CNRS가 주요 지원기관이고 다른 기관들은 거의 지원액이 미미한 편이다. 1999년의 경우 대학연구를 위해 국가는 150억 프랑을 지원하였다. 대학의

〈표 5〉 연구비 지원

(단위: 회)

	어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예체능
교원	565	285	992	1,798	1,564	645	313	54	168
비교원	185	180	211	102	34	19	19	8	27
합계	750	465	1,203	1,900	1,598	664	332	62	195

* 출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분석(1)』, 2001.12, p.7

연구 중에서 1999년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이 23%, 수학 및 물질과학 43%, 지구 및 우주과학 8%, 생명 및 보건과학 28%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경우 사회과학(social sciences: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기타)이 1997년 전체 R&D 중에서 4.6%, 심리학(psychology)이 1.6%를 차지하였다(NSF, 2000, A-318). 이러한 사회과학 지원의 대부분을 NSF(37.9%),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35.4%, Department of Agriculture 26.5%가 맡고 있다(NSF, 2000, A-328).

V. 인문사회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외국의 경향

선진국가들은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에 의해 연구정책이 관장되고 있으며 비록 R&D 정책이 경제에 기여한다 해도 응용학문보다는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과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Faure, 2001, 1). 프랑스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 정부는 4가지 차원에서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각 지역에 인문과학관들(Maisons des

sciences de l'homme)을 지어 서로 연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테마별로 대단위 연구소들을 만드는 것이다. 2001년 국립미술사 연구소(INHA)가 만들어진 것도 그 일원이다. 셋째, 학제간 프로젝트들(projets transdisciplinaires)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과 의학을 연결한다든지, 과학, 기술, 사회관계 영역 등 학제적인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국제관계라든지, 문화적 환경(지중해 지역, 발칸 지역, 동유럽, 아랍권 등)의 연구영역에 지원하는 것이다(Ministere de Recherche, 2002, 39).

영국 ESRC(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의 경우 2001~2006년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에 의하면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과학연구를 학술적 국가적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다(focus science research on scientific and national priorities). 둘째, 사회과학연구의 최상의 질을 위해 능력을 증진시킨다(enhance the capacity for the highest quality in social research). 셋째, ESRC의 정책과 실행에 대한 연구의 영향을 증대시킨다(increase the impact of ESRC's research on policy and practice). 넷째, ESRC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한다(deliver ESRC's activiti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결국 focus, quality, impact, activities

〈표 6〉 캐나다 SSHRC에서의 인문사회과학

전략적 결과	캐나다인에게의 이익	시현방법
캐나다인에게 significant advances in knowledge and expertise를 제공하고 제 1수준의 연구능력과 과학(학술)정책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strong leadership을 제공한다	인문사회과학에서의 캐나다의 세계 수준의 연구 능력(capacity)	→ 질적 수준 있는 peer-reviewed research → 국제연구에서의 SSHRC 지원받은 연구자의 국내적·국제적 awards and honours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이해에 공헌하는 지식(knowledge)	→ 연구의 사회적, 문화적, 지적, 경제적 영향 → SSHRC 지원받은 연구자들의 공공토론에서의 공헌
	캐나다의 대학, 공공연구기관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잘 훈련된 연구자들과 전문화된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	→ 박사, 박사후 과정의 성공 → SSHRC research grants로 훈련 받은 학생들 → 직업에서의 성공
	대학, 공공기관, 대중이 연구지원으로 생성되는 지식의 소통과 이전 (communication and transfer of knowledge)	→ publication → 연구자들에 의한 SSHRC 지원연구의 인식과 사용(awareness and use)
	캐나다의 인문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적 리더쉽(policy leadership)	→ 정책과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의 인문사회과학 발전에의 영향

* 출처:SSHRC, Performance Report, 2002, p. 9.

라는 4개 목표에 치중하고 있는데, 특히 첫번째 목표는 ESRC의 Thematic priorities를 통해 완수되는데 전국적인 협의를 통해 7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ESRC, 2002).

캐나다 SSHRC(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의 경우 전략적 결과를 예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캐나다인에게 유익한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표 6〉). 아울러 2001년 대학

17. 연방조직 21, 개인 41, 기타(지방정부, 시, 기업, 싱크탱크 및 협회 등) 35단체의 조사를 통해 잠재적 주제(potential themes)를 정한 바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노력은 영국의 Thematic priorities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9.11사태 이후 인문학 지원기관인 NEH(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에 의해 2002년에는 '미국의 재발견

(Rediscovering America)', 2003년에는 '우리는 국민(We the People)'이라는 발안(initiative)을 통해 미국인들이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후속세대를 위한 풍부한 유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재발견'의 일환으로 '범주확대(Extending the Reach)'하여 전국적으로 개인, 도시, 공동체, 지역, 기관(institutions)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NEH의 전 의장인 Bill Ferris가 주안점을 두고 수행한 이 사업은 인문학을 모든 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주의 역사와 문화를 온라인으로 백과사전화하는 작업, 소리로 저장된 유산을 보존하는 작업, 역사적 신문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지역역사의 보존과 해석에 대한 지원사업, 학교에서의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 인문학에 새로운 전자기술을 사용해 이노베이션하는 작업, 인문학 지식과 이해의 증진, 미국 국민들의 문화적 지적 자원의 사용성 증대, 각주의 인문학위원회 활동 강화, 인문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 등 인문학의 발전과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NEH, 2002, 2003).

VI. 맺음말

인문사회과학 분야 및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비의 확대를 적어도 선진국 수준만큼은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나 연구지원기관 또는 기업, 대학 당국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와 분위기를 마련하고 젊은 연구자와 젊은 학생들이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인문사회과학,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 학자들 스스로도 연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예산상의 제한 때문에 중점지원주제들을 정하여 연구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계 스스로, 한편으로는 인문사회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여 전반적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학술지원기구의 경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기초과학 연구지원을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자기반성을 통해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체제가 보편적이다. 하지만 평가가 중요하다 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OECD 보고서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구에 대한 평가는 엄격한 평가와 판단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수준의 연구체계를 관리하는 정책결정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OECD, 1997, 9). 아울러 인문사회과학이 시장경제 메커니즘 속에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문 후속세대들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전통이 자리잡고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연구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연구에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인력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수의 창조적이고 잘 훈련된 개인들이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OECD, 1999, 83). 현재 시장적 수요보다 박사학위를 받은 인문사회과학도들이 많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장기적 관점 혹은 실제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현재에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田

〈참고자료〉

김남두(2001). 『인문학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2).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결과
배규환(1998). 『인문 사회계열 학술진흥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장수영(2001).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대학교육 역량제고,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한국학술진흥재단(2002).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한국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회(2001).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분석(I)』
Allen, Robert(1999). *Education and Technological Revolutions: the Role of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in the Knowledge Based Economy*
ESRC(2002). Annual Report 2001-2002
Faure, J.J(2001). *La politique Francaise de recherche-developpement*. Paper presented to Korea Research Foundation
Geuna, Aldo(1999). *The Changing Rationale for European University Resear Funding: Are there Negative Unintended Consequences?*, Electronic Working Papers Series no.33, SPRU, University of Sussex.
Lee, Hung Yung(2002). *Korean Studies' Dilemma: Area Studies versus a*

Disciplinary Approach, paper presented to the Yonsei Korean Studies Forum, 14 November

Mayor, Federico(1998). *The Role of the Social Sciences in a Changing Europe*, ISSJ (Unesco) 157, 455-459
Ministere de Recherche(2002). *Le Projet de Budget Civil de Recherche et de Developpement BCRD 2002*
NEH. Summary of Fiscal Year 2003 Appropriation Request, <http://www.neh.gov/whoweare/2003budget.html>.
NEH. Summary of Fiscal Year 2002 Appropriation Request, <http://www.neh.gov/pdf/other/congress2002.pdf>.
NSF(2002).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2000*
OECD(1999). *University Research in Transition*
OECD(1997).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Research: Selected Experiences*

주자문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충북대 총장,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사회교육연구: 이론과 실제, "한국에 있어서 Phillips Curve의 실증적 연구"」의 다수가 있다.